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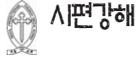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병든 자의 호소

(시편 38: 1~ 2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편 38편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본문에 있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것은 심한 병에 걸려 있고 고독과 소외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다윗의 시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병약한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도처에서 다윗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이 기록이 없는 것은 개인의 질병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생기지 않은 한 구태여 언급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동안 자주 병들었고 그 병으로 인해 신음했습니다.

1. 여는 기도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1절).

이 기도는 참회시 중 첫 번째인 시편 6:1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두 시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사적 순서로 보면 6편 보다는 38편이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시편 38:22에서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했는데 시편 6:9-10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책망 받는 일을 원치않거나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진노로 다스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2. 자신의 고통을 아뢰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본문 3절과 5절에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because of)’, ‘까닭이로소이다’라고 세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법적적 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심각한 죄의 벌로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값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단의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오히려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까닭에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들어 당하는 고통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누르는 듯한 답답함(2절), 만신창이가 된 괴로움(3절), 코를 들 수 없는 악취(5절), 허리를 펼 수 없는 통증(6절), 불이 나는 듯한 화가(7절),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신음(8절)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무거운 고통 중에서도 고결한 성도의 상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3절).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 결코 죄값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과소평가 하지 않고 막중한 죄로 알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유에는 회개나 선행되어야 하고, 회개에는 고통이 동반되게 마련인데 그것은 징계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과 그 죄를 끊어 버리려는 아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거침없이 죄를 범하고도 죄책감 없이 죄값인 고통만 면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것을 기도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다윗은 이같이 무거운 고통 중에서도 고결한 성도의 상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3절).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 결코 죄값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과소평가 하지 않고 막중한 죄로 알며 괴로워했습니다.

3. 두 번째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15절).

다윗은 병들어 아픈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와 더불어 가까이 지내던 친지들의 이반과, 그로 인해 기고만장해진 원수들의 조소 때문에 심화된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고매한 성도의 상을 좀처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벗들의 배신, 원수들의 조소를 귀머거리처럼, 병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할 뿐 일체 변박하지 않았습다(13-14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이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으며 변명을 하여 상대를 설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지의 배신과 원수들의 조소의 원인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회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변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기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고통을 받고 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처지라면 사람을 향한 구구한 변명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4. 세 번째 기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앙망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본편의 첫 부분과 중간 부분에서

자기의 할 일인 회개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 곧 회개한 자신을 사유하시고 구원하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15절).

시인은 구원을 위한 기도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의 선생이고 모델입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울에 의해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왕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후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니던 때도 있었으나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5. 닫는 기도

친지의 배반도 마음 아픈 일이고 원수의 모함도 불쾌한 일이지만 그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요 은복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속하였나이다”(은 2:9),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도우심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성경 일천독 대장정』에 오른다

2007년은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평양대부흥운동>의 두 가지 중심축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였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2007년 한 해 동안 성경 1독을 함으로써 “성경 일천독 대장정”(지도-정수길 목사, 실행위원장-임훈규 장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찬양예배 찬양의 향기로 가득

주일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시간이 날이 갈수록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다.

오늘(21일)은 이성심 집사의 오르간 연주와 험시바 중창단의 남성중창 그리고 소프라노 김경미 선생의 독창이 있는 후 우리 자매 부대 장병들의 우렁찬 찬송과 특별 초청된 김상돈 목사의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이웃들을 많이 초청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2007 비전2020 후원자의 밤 1월21일(주) 오후 6시 30분 801호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한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7 비전2020 후원자의 밤을 개최한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의 밤은 21일(주) 오후 6시30분 만나홀(801호)에서 열리며 우리교회 자매부대인 3사단과 23사단 6군단, 육군사관학교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국군장병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군인 한 사람 수세를 위한 필요경비 3000원을 1구좌로 하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현금봉투는 2층 새가족환영실 앞에 비치되어 있다.

강희자 고평미 고후덕 김규태(박미혜) 김대웅 김동봉 김복승 김세웅 김숙자 김윤 김인순 김주현 김진달 김태삼 김태현 나점균 노영환 문동진 박경옥 박상희 배정자 서영세 성준경 손태현 송경옥 송인수(박한옥) 엘리아선교회 오광환 오승민 오영자 오정수 위성남 유관모 유은경 유진숙 유태서 유후자 이갑진 이기범 이기택 이기택(이기욱) 이명구(문옥일) 이승문 이승희 이윤미 이정희 이종균 이지은(현규,고은) 이철민 임광호 임낙식 임미경 임훈규 장운기(노애리) 전원순 정병무 정희순 조정욱 차도훈(남태영) 최숙자 최양진 최영순 최임수 최향봉 한나전도희

(다음주 계속)

1. 주요 일정

- 기간: 2007년 1월1일 - 12월31일
(일년동안에 신구약 성경 전권을 통독하는 이가 적어도 1,000명 이상 나오게 한다.)
- 행사설명회: 1월28일(주일) 2부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 참가신청기간: 1차: 1월31일(수)
2차: 2월28일(수)

2. 세부 사항

- 모든 성도는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락방별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사무국이나 서울교회 Homepage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각 고유번호를 받게 된다.
(해외 성도들도 서울교회 Homepage에 접속 신청할 수 있다.)
- 성경을 통독한 분은 교구나 사무국에 즉시 보고를 한다.
- 교회는 한반도 지도를 1,000 등분하여 각각 번호를 정하고 통독 보고자의 이름을 해당 난에 붙인다. (1,000 명이 넘을 경우에는 바다를 채운다.)
- 읽는 방법은 교회가 배포해준 성경읽기 진도표를 사용한다.
- 개인 또는 가족단위, 다락방이나, 교회학교에서 함께 읽을 수도 있다.

2007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1월25일(목) - 고등부 수련회 시작으로

2007년도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시작된다. 총회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하는 공동체’를 따라 교회학교 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세운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다.

영성회복을 위한 이종운 목사의 특강과 정수길 지도 목사의 뜨거운 기도 인도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첫 수련회는 고등부에서 시작한다. 고등부는 1월 25일(목) 강화도의 화이트하우스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3일간 수련회를 갖는다. 학생들의 감사와 은혜와 거듭남이 함께하는 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교회학교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표 >

부서	일시	주제	강사	장소
유아부	2/23(금)-2/24(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종운 목사/박금실 전도사	서울교회
유치부	2/23(금)-2/24(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종운 목사/이규정 목사	서울교회
유년부	2/23(금)-2/24(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종운 목사/이태훈 목사	서울교회
초등부	2/23(금)-2/24(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종운 목사/장석남 목사	서울교회
중등부	2/22(목)-2/24(토)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종운 목사/윤영국 목사	진위고등학교
고등부	1/25(목)-1/27(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종운 목사/정수길 목사	강화도화이트하우스
사랑부	2/11(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태훈 목사/주원순 선생	서울교회
대학부	2/5(월)-2/7(수)	부르심	이종운 목사/서명철 목사/이태훈 목사	철원수도중앙교회수양관
청년부	1/26(금)-1/27(토)	청년이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이종운 목사/장석남 목사	갈보리수양관
디아스포라	2/2(금)-2/3(토)	구원의 약속 안에 거하라	이종운 목사/윤영국 목사/박광일 전도사	서울교회
에바다	2/28(수)-3/1(목)	빛의 사자	이종운 목사/임규현 목사	미정
신혼가정부	1/27(토)	Becoming One	이규정 목사	엘림하우스

<금주의 성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2)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Habakkuk 3:2 [NIV])

2007년 겨울 수련회 초대이글

나의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는 우리교회!

우리의 기도

이은옥 권사(고등부 부감)

김지홍 성도(청년부 회장)

한상준 집사(11교구)

2007 우리교회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강화도 화이트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고등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2007년 새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는 먼저 기도로 나아 갈 것입니다. 개인별·조별기도를 포함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연합 중보기도 등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면,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특강을 비롯하여 선택특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품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밖에도 저녁 부흥집회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며, 뜨거운 체험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G.B.S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7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과 세계로 도약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소중한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만남과 부르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권면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26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27일 오후까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갈보리 금식기도원에서 열립니다.

청년부는 금년도 교회 표어인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를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본받아 우리 서울교회 청년들이 민족의 빛으로 다시 일어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도 "청년이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특강, 공동체 훈련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 신실하게 사랑으로 빛이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함께 이번 겨울 수련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함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설계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청년부에 잘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겨울 수련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 후 601호로 오세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여!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며 슬플 때 주님께 감사하며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지쳐서 쓰러질 때,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고 절망의 길에서 방황할 때, 희망의 빛 허락하소서!

작은 것 하나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기쁘게 하소서!

불평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여 변화케 하시고 고통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연단으로 알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힘을 주시는 아버지! 현재 내게 주어진 여러가지 현실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목표로 정하여 출발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파하게 하소서...

움츠렸던 가지가지 마다 새싹을 틔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대자연의 섭리도 주님의 오묘하심을 알게 하사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희망찬 삶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대학부 성경통독수련회

again 1907

이상영 성도(대학부 회장)

대학부 성경통독 수련회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교회 403호에서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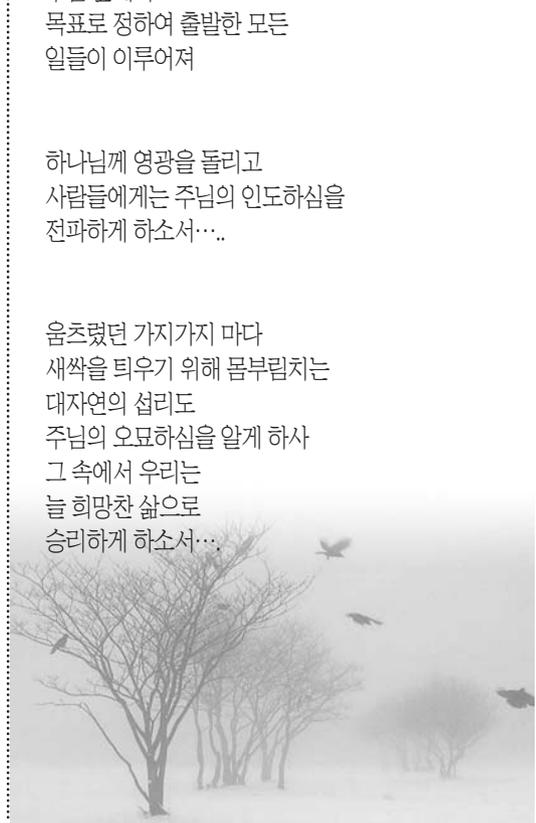
대학부는 매년 여름에 진행되었던 성경통독수련회를 앞당겨 1907년에 뜨겁게 타올랐던 부흥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한 성경1000독 대장정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5일간 진행되는 만큼,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각자 자신이 읽을 범위를 조정한 가운데서 혼자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성경1독을 할 수 있으며, 통독수련회가 진행되는 5일 중에 중간중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에 읽기를 멈추었던 부분 부터 다시 읽을 수 있어, 성경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대학부원이 아니라도, 서울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올해, 새롭게 시작될 서울교회 부흥의 역사에 첫 불씨가 될 이번 행사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풍성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성경1000독 대장정에도 이름을 남기는 의미있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인도 조범연, 김희정 선교사를 위하여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교회는 2010년까지 10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부흥의 해를 맞아 순례자에서는 교회계획에 발 맞추기 위해 현재 10여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신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 도고팀들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조 선교사님은 인도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교인 Union Biblical Seminary에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길러내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조범연·김희정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후원자는 팀장으로 이인숙권사, 팀원은 정병무장로, 노문환장로, 이은희권사, 곽숙권사, 장정화권사, 김찬진권사, 김일순권사, 안미경집사, 이찬호집사, 최형열집사, 최홍열집사, 은기장집사입니다.

조범연·김희정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제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기도제목

1. 인도 소망의 집에 기거하고 있는 불우한 자매들 모두가 직업을 구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와 함께 소망의 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무더운 날씨와 온도에 잘 적응 할수 있도록
3. 신학대학교(UBS)와 교단본부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잘 길러내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4. 10년 전에 없어진 새벽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성 깊은 주의 일꾼들을 양성해 내도록
5. 인도의 오지를 다니며 아픈 사람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주님의 치유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인도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6. 선교사님의 영육 간에 건강함을 주셔서 예수님 마음을 닮아 사랑과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7. 선교사역의 모든 행정적인 문제(특히 비자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이 인도어를 속히 습득하여 잘 가르치고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조범연·김희정 선교사는 2005년에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로 5년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인도 선교를 공부하며, 인도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12억의 인도 대다수 영혼은 우상숭배와 가난과 무지 속에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갖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인도의 복음화는 인도인들

2007동여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다음주 계속)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각)	
경안노회	감은울목	고창현(전)	모세, 한나	2	
		최종덕(전)	이동만, 이은자, 이병현, 채경희, 이승준	1	
	부남명성고곡	신덕만(목)	이승희, 이종용, 이영기, 이영숙, 이우진, 김일순, 이인보	1	
		황현석(목)	이재순, 이종균, 이정수, 최경분	1	
	광음팔성	임숙화(목)	이천호, 최정순, 이희민, 임광식, 노영숙, 임광호, 김정미	1	
		이상섭(목)	마리아	4	
	전서노회	북면중앙장금	김주철(목)	바울, 임상권, 서희숙, 임종식, 신선주, 백종명, 송인숙	0.5
			윤영석(목)	장명순, 정인원, 박경옥, 정동학, 김복순, 정수환, 조명준, 조미진, 조정옥	1
	강원노회	석향제일유치리	조좌상(목)	한영철, 한정택, 장은영, 황경신, 1-12다려방, 홍순복, 홍정배, 권희순, 곽숙, 전용택, 김상식, 이은혜, 김중은, 김태삼, 조숙자, 노병호, 홍지나	1
			최상관(목)	권사희	5
기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스데반회	5	
		유창진(목)	이관규, 이순영, 여유현, 양미숙	1	
군인교회	531탄약대	김상철	김상철, 최원자	1	
		조용표(목)	이강진, 송미령	1	
지정교회	대동교회	김영환(목)	박찬성, 신명숙	1	
		심정택(목)	이영기, 예사모, 문영숙, 최원석, 박길희	0.5	
대동교회	2전차대	김완수(목)	진돈, 김경희	1	
		주수원(목)	백남은, 김자희	1	
백령도63대대	참빛교회	차태호(목)	한승집, 최미아	1	
		권혁민(목)	이강진	1	
미시령교회	해암교회	김상수(목)	오유식	1	
		피상열(목)	박순옥	1	
대동교회	빛나는교회	한영(목)	이복규, 한명순	1	
		이성우(목)	주동재, 김동진	1	
해암교회		오창식(목)	홍승전, 황정임	1	

강남노회여전도회 임원 세미나

1월 25일(목) 오전 10시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2007년 강남노회 여전도회 임원 세미나가 개최된다. 우리교회 여전도회 회장 및 임원들의 참석을 바란다.

등정

■ 이종은 목사는 24일(수) 장로교신학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5일(목) 주일학교 부지도 선발을 위한 면접을 한다.

■ 득남(9교구) 우정무성도, 최선한성도 가정
■ 우상태 집사(12교구) 2007년도 강남노회 아동부연합회 회장으로 선출

■ 주간 식당 봉사: 퇴직전도회(1, 21), 마리아전도회(1, 28)

■ 금주의 식사: 이찬호 집사 최정순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교회예산 60% 이상 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애족 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